오바마, 아시아 정책 실체 아리송

한미 FTA 반대 천명 무역정책 우려
실질적 변화 강조…북핵 해법 불확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내정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북한 핵문제 등 대(對)아시아 정책에 관해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의문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첫해에 조건없이 북한 등 불량국가 지도자들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발언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와 '테러와의 전쟁' 전략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오바마 의원의 발언이후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론 그가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의 본선 경쟁에서 승리한다면 이는 발전도상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개막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가 그동안 강조해 온 '실질적인 변화'는 아시아 지역에서 긴장을 야기할 수도 있다.

우선 오바마가 북한 핵문제와 관련,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이를 어떻게 다룰지 불확실하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 해에 조건없이 북한 김정일 등 불량국가 지도자들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었다.

민간 싱크탱크인 미 외교협회(CFR)의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바마 의원의 대외정책에 관한 자문팀들은 외교현안에 관한 민주당의 기본 입장에서 벗어나 좀 더 독립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는 또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공약해왔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정과 번영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이 지역 국가들과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의 무역정책은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오바마는 당장 지난 15년새 미국의 최대무역협상인 한미 FTA에 반대한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했고,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의 FTA에도 반대하고 있다. 그는 또 대(對) 중국정책과 관련,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이 계속 위안화를 저평가상태로 유지하면 전례없는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강경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한 예로 그는 지난 5월 환율의 인위적 조작을 미국 무역법상의 보조금으로 간주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연합뉴스

중국 인민해방군이 9일 쓰촨성 인근 용안시 지역에서 홍수 위협에 대비해 임시댐을 건설하고 이다. /연합뉴스

中 강력 여진…언색湖 붕괴 위기

산사태·호우 겹쳐 제방 누수 '불안'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생겨난 탕자산 언색호 지역에서 8일 강력한 여진이 발생하면서 언색호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신화통신은 이날 오후 6시51분 베이촨에서 규모 4.8의 여진이 발생, 탕자산 언색호가 20초 동안 심하게 흔들렸으며 양쪽 산에서 대규모 토사가 밀려 내려왔다고 밝혔다. 또 쓰촨에 북쪽으로 인접한 칭하이성에서도 9일 새벽 1시56분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으나 쓰촨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탕자산 지역에서는 이날 밤부터 비까지 내리기 시작해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방류되는 물의 유속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쓰촨 대지진 이후 피해 지역에는 무너져 내린 산들이 강의 흐름을 막아 언색호가 30개 이상 생겨났으며 탕자산 언색호는 이들 중 최대 규모로 저수량은 2억2천㎥를 넘어 항저우(杭州) 시후(西湖)를 2개 합쳐놓은 수량이다.

탕자산 언색호 지휘부는 아직 새로운 대피 명령이 떨어지지는 않았으며 토사 제방이 무너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사태에다 비까지 내리면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제방에 누수현상으로 물이 분출되고 있어 붕괴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탕자산 언색호 하류에 있는 멘양시에서는 최근 수주일 동안 홍수 위협에 대비해 25만명 이상이 대피했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이 이 언색호에 고인 물을 빼내기 위해 중장비와 폭약을 동원해 수로를 만들었고, 7일부터 물이 제방위를 넘쳐 흐르면서 자연방류를 시작했다. 인민해방군은 무반동포를 쏴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바위를 분쇄했다. 하지만 탕자산 언색호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유입되는 양이 5배 가량 더 많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특히 언색호 상류지역에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400~60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언색호 붕괴로 인해 하류지역이 수몰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美기지 이전비 확보 비상

정부 부처·지자체 재산권 행사 주장, 용산기지 용도 변경도 불확실

정부 일부 부처가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 7곳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고, 용산 반환기지의 용도변경도 확실치 않아 미군기지 이전비 재원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방부는 반환기지를 용도변경 등을 통해 대부분 매각, 기지이전에 따르는 우리 측 부담액으로 추산되는 8조9천478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자체에서 재산권을 행사하게될 경우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진다.

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국세청, 산림청 등 7개 부처가 7개 반환기지 48만9천여㎡에 대해 과거 미측에 공여되기 이전에 관리해 온 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산의 하야리아(485억원 상당), 기재부는 파주의 에드워드(127억원), 교과부는 종로의 극동공병단(5천306억원), 농림부는 파주의 자이언트(1억4천만원), 법무부는 의정부의 스텐리(60억원), 국세청은 춘천의 페이지(19억원), 산림청은 인천의 캠프마켓(1천139억원)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들 부처의 주장은 '원 관리청 명의로 공여되었던 국유재산이 반환되면 국방부 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는 현행 주한미군기지 이전특별법 제8조와 배치하는 것이다. 이들과는 다른 경우로 용산에 있는 반환부지 가운데 수송부와 유엔사 부지는 서울시의 고도제한에 묶여 용도변경이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김하중 통일장관 6·15선언 8주년 기념행사 참석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오는 12일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9일 "김 장관이 6·15 행사에 참석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행사 주최측인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도 "김 장관이 행사 참석 의사를 표명해왔다"면서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장관이 정부 측 참석인사 중 최고위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사말이나 축사 등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6·15선언을 만든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관계자와 정치·종교·시민단체 인사, 외교사절 등 700여명이 참석하는 이 행사에서는 6·15선언의 이행과 남북 당국에 대화를 촉구하는 선언문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납북 어부 윤종수씨 33년만에 탈북

北가족과 함께 탈출하다 부인·딸은 붙잡혀

1975년 8월 동해에서 조업중 납북된 어선 '천왕호'의 선원 윤종수(66)씨가 33년만에 북한을 탈출해 중국 선양 주재 우리 영사관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9일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남 개천에 거주하던 윤씨가 지난달 초 탈출해 같은달 20일 선양 영사관으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윤씨는 납북 1년 뒤인 1976년 6월 평남 개천군 농기계작업장에 배치돼 일해 왔으며, 북송 재일동포 신수희(67)씨와 결혼해 딸 지향(27)씨를 뒀다고 최 대표는 말했다. 윤씨와 함께 납북됐던 천왕호 선원 33명중 고명섭(64), 최욱일(68), 이한섭(60)씨는 이미 탈북해 국내에 들어와 있다.

최 대표는 "윤씨의 딸 지향씨는 부모를 먼저 탈출시킨 뒤 따라 나오려다 평남 개천군 집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인 수희씨는 남편과 함께 량강도 혜산까지 왔으나 북한에서 체포령이 내린 것을 들은 후 혜산역 부근에 홀로 숨어 있다가 체포됐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윤씨의 부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이웃 할머니의 부축을 받아가며 혜산까지 왔었는데 체포령이 떨어지자 윤씨가 부인을 부축해 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에서 홀로 강을 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연료봉 처리 등 북핵 불능화 집중논의

성 김 과장 방북 10~11일 북핵 실무협의

북한과 미국은 10~11일 평양에서 예정된 북핵 양자 실무협의에서 플루토늄 원자재인 미사용연료봉의 처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작년에 미사용연료봉을 우리가 구입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한 바 있어 이번 북·미 협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은 9일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의 방북은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대로 핵시설 불능화에 대해 북한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10·3합의에서 약속된 불능화 조치 중에서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이번에 집중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현안에 정통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의 요청으로 협의가 열리는 것"이라며 "불능화에 대한 북측의 생각들이나 이에 상응해 이뤄지는 경제·에너지 지원과 관련한 (속도를 높여달라는) 얘기들을 하지 않겠나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10·3합의에 의해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불능화 조치는 11가지로, 이 중에서 ▲폐연료봉 인출 ▲미사용연료봉 처리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 제거 등 3개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뉴스